

한국과 일본 전통 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 조사

Comparative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House

박영순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안지윤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연구조교

Park Young Soon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Ahn Ji Yoon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house, Japanese traditional house, Formative characteristics, Attitude of traditionality

1. 연구의 의의

한국적인 디자인 문화의 정립의 근거는 우리의 전통적 조형물에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법에 대한 재인식이 우리 나름의 조형 언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조형물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적특성에 대한 미학적 규명과 더불어 통합적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거 디자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전통 주택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 언어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오늘날의 디자인에 원용하고자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전통성을 수용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한일 전통 주택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여 과연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조형의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의식을 고찰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를 표현하는 어휘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일반인의 의식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일본 전통 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규명한다.
- (2) 한국과 일본의 전통주택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의식을 연령별, 성별, 전통 의식별, 한옥 거주 유무별로 파악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으로는 사진 선정과 어휘 수집 및 추출을 위한 문헌 조사방법, 자유 연상 측정법, 그리고 조형성 조사를 위해 의미분별 척도법을 사용한 설문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한일 전통 주택의 대표하는 사진으로는 한국의 연경당과 일본의 요시무라 주택의 외부와 실내, 가구를 나타낸 6장의 흑백 사진이 사용되었고, 설문지는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변인, 전통에 대한 의식 문항, 조형성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회사원과 대학생으로 20대에서 5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이며, 배포된 전체 250부중 212부를 회수, spsswin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4. 연구 결과

1) 전통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과 연령, 한옥 거주 경험이었다. 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조형성이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옥 거주 경험이 전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표 1>에서 보듯이 한일 전통 주택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어휘는 크게 8가지 요인 구조로 질서성, 정서성, 심미성, 개방성, 협소성, 단순성, 정교성, 구조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방성과 협소성을 공간성의 차원으로 단순성과 정교성을 장식성의 차원으로 묶어서 전체 6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심미성과 정교성이 다른 구조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요인구조로 파악되고 있

었다. 또한 요인이 나타난 순서는 국가 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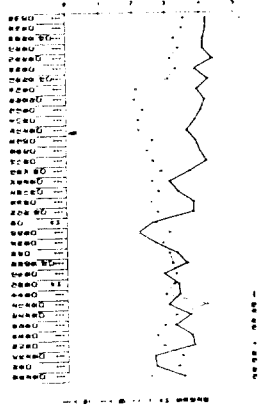
<표 1> 한일 전통주택 조형성 표현 어휘

조형적 특성	조형성 평가 어휘	각국별 출현된 요인(요인 두 가지)			
		한국		일본	
질서성	정돈되다	요인1	.85570	요인1	.84983
	깨끗하다	"	.81958	"	.80416
	통일감이 있다	"	.77920	"	.83252
	단정하다	"	.77776	"	.79104
	균형잡힌다	"	.61778	"	.75495
	깔끔하다	"	.60305	"	.73294
정서성	안정감이 있다	"	.58363	"	.71692
	무근하다	요인2	.85416	요인3	.87974
	심감어리다	"	.81280	"	.86439
	편안하다	"	.76020	"	.72658
심미성	부드럽다	"	.59479	"	.43808
	곡선적이다	"	.45088	"	.47848
	세련되다	요인3	.76322	요인2	.57982
	아름답다	"	.76299	"	.57250
공간성	옛스럽다	"	.71705	"	.65421
	변화가 있다	"	.59148	"	.73280
	개방적이다	요인4	.79484	요인4	.44980
	시원스럽다	"	.75728	"	.66771
장식성	여유있다	"	.61807	"	.74971
	공간감 있다	"	.58201	"	.73242
	좁다	요인8	.84100	요인7	.76817
	답답하다	"	.80659	"	.73115
단순성	복잡하다	"	.46167	"	.59443
	차있다	요인9	.60525	요인6	.43186
	절제되어 있다	요인9	.51304	요인1	.56007
	단순하다	요인5	.78631	요인6	.67309
정교성	간결하다	"	.71639	"	.59692
	수수하다	"	.58449	"	.47406
	직선적이다	"	.46232	"	.51800
	상수적이다	요인6	.79020	요인2	.71262
여성성	호려하다	"	.63753	"	.81642
	섬세하다	"	.54162	"	.47888
	정교하다	"	.49724	"	.67681
	남성적이다	요인7	.89469	요인5	.87993
여성성	강하다	"	.84018	"	.81993
	여성적이다	"	.72389	"	.69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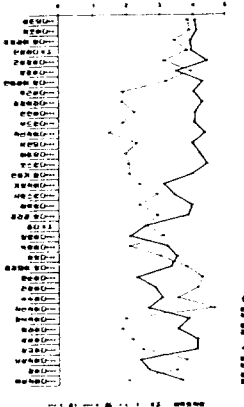
3) 조형성 표현 어휘 척도를 통해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두 나라의 조형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는 전통주택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각 어휘들이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좁다', '간결하다'를 제외한 전반적인 어휘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에 비해 '답답하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직선적이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등의 어휘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의 전통 주택이 한국에 비해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통 주택은 정교하고 곡선적이며 여성적인 특성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표 3>은 주택의 외관에 대한 어휘척도 평가에 대한 결과로 특히 '단정하다', '좁다'를 제외한 전반적인 어휘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외관의 경우 일본은 한국에 비해 '깔끔하다', '답답하다', '절제되어 있다', '단순하다', '간결하다', '수수하다', '직선적이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등의 어휘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 주택의 외관이 한국에 비해 깔끔하고, 단순하며, 간결하고, 직선적이며,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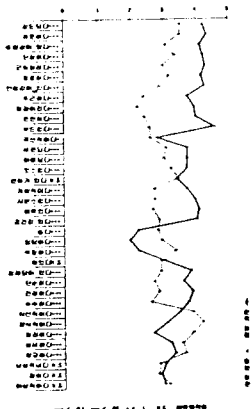
<표 2> 한일 전통주택 전체의 조형성 평가 차이 윤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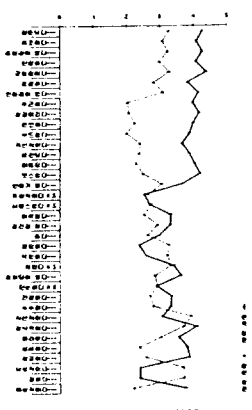
<표 3> 한일 전통주택 외관의 조형성 평가 차이 윤곽



<표 4> 한일 전통주택 실내의 조형성 평가 차이 윤곽



<표 5> 한일 전통주택 가구의 조형성 평가 차이 윤곽



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통 주택은 복잡하고, 장식적이며, 곡선적이고,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표 4>는 주택의 실내에 대한 결과로, '변화가 있다', '차있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여성적이다'를 제외한 전반적인 어휘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내의 경우 일본은 한국에 비해 '좁다', '답답하다', '복잡하다', '직선적이다', '장식적이다', '화려하다', '섬세하다', '정교하다', 등의 어휘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 주택의 실내가 한국에 비해 공간성에 있어서는 더 좁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직선적이지만 보다 장식적이고, 화려하며, 섬세하고, 정교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것은 주택의 외관에서 보여주는 단순성과는 반대로 나타나 일본의 전통 주택은 외관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단순하지만 실내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5>는 전통 가구에 대한 어휘적도 평가에 대한 결과로, '개방적이다', '시원스럽다', '차있다', '단순하다'를 제외한 전반적인 어휘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의 경우 일본은 한국에 비해 '답답하다', '복잡하다', '직선적이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등의 어휘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의 전통 가구가 한국에 비해 공간성에 있어서는 더 답답하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직선적이며, 남성·여성성에 있어서는 더 남성적이고,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본 전통 주택의 외관에서 나타나는 단순성과 일치하며, 일본의 전통 주택의 실내에서 나타나는 특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전통 주택의 전체적인 조형성과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다.

4) 한옥 거주 경험에 따른 조형성 평가 점수의 비교 결과 한국의 경우 한옥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서성과 정교성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일본의 경우 정서성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5) 연령에 따른 조형성 평가점수 비교 결과 한국의 경우 정서성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개방성과 협소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 폐쇄적이라고 느꼈으며, 단순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모든 차원에서 연령과의 관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6) 전통의식에 따른 조형성 평가 점수 비교결과 한국의 경우 질서성, 정서성, 심미성과 전통 의식과 비례 관계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모든 차원에서 차이가 없었다.

5. 결론 및 제언

한일 전통 주택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어휘는 크게 8가지 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요인이 나타난 순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전통 주택 조형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전통 주택이 한국에 비해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전통 주택은 외관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단순하지만 실내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 가구에 있어서는 일본전통 주택의 전체적인 조형성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전통 가구가 전통 주택 전체 조형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구는 일본의 가구에 비해 개방적이고, 장식적이며 정교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보다 여성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의거하면, 보다 객관적인 조형성 평가를 위해서는 공통 어휘 적도의 개발과 외국인의 의식 조사가 필요하며, 현대 주거에 전통적 조형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전통적 조형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을 다른 조형물로 확대하면 한일 조형 의식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